



내신 기출

문학 신사고 (상편)

총만국어

www.chongmanguk.co.kr

[교재 구입]

풀버전] 네이버 검색 '총만국'

<<내신 기출 문학 신사고-상편>>

◆차례◆

I 문학의 본질과 구조

- *산수유나무의 농사(문태준)-----1쪽 (26문제)
- *서경별곡(작자 미상)-----9쪽 (39문제)
- *나상(이호철)-----23쪽 (44문제)
- *북어 대가리(이강백)-----45쪽 (42문제)
- *나와 남(장영희)-----64쪽 (8문제)

II 문학의 수용과 생산

- *이춘풍전(작자 미상)-----70쪽 (32문제)
-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백석)-----87쪽 (22문제)
- *세한도(고재종)-----95쪽 (9문제)
- *메밀꽃 필 무렵(이효석 원작, 안재훈 각색)-----99쪽 (27문제)
- *유충렬전(작자 미상)-----114쪽 (26문제)
- *울포의 기억(문정희)-----128쪽 (6문제)

III 한국 문학의 성격과 위상

- *속미인곡(정철)-----132쪽 (39문제)

IV 한국 문학의 갈래와 흐름

- *찬기파랑가(충담사)-----147쪽 (10문제)
- *시조 세 편(황진이, 윤선도, 작자 미상)-----150쪽 (27문제)
- *수의 비밀(한용운)-----158쪽 (15문제)
- *사씨남정기(김만중)-----164쪽 (12문제)
-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조세희)-----171쪽 (14문제)

▶정답-----181쪽

▶해설-----184쪽

(버전: 2020.03)

산수유나무의 농사

핵심 정리

교과서 14-15쪽

- 갈래** 자유시, 서정시
- 성격** 상징적, 성찰적
- 제재** 산수유나무의그늘
- 주제** 산수유나무의그늘이 주는 배려와 평안함

핵심 정리

교과서 14-15쪽

- 특징** ① 자연물에 대한 참신한 문학적 발상을 바탕으로 시상을 전개함.
- ② 색채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시각적 이미지를 선명하게 제시함.
- ③ 자연물의 모습과 속성을 제시하고 그와 대비되는 인간의 모습을 성찰함.

핵심 정리

교과서 14-1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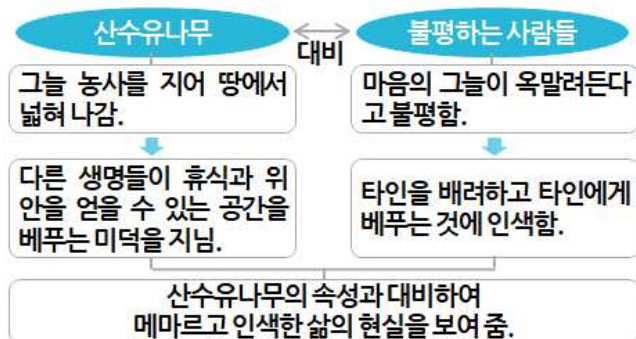
구성

- 1~2행** 산수유나무가 노란 꽃을 피워 그늘을 만들.
- 3행** 불평을 지닌 사람들에게 산수유나무의 그늘을 보라고 권고함.
- 4~7행** 산수유나무가 그늘 농사를 지어 그늘을 넓혀감.
- 8~9행** 산수유나무가 노란 좁쌀 다섯 되 무게의 그늘을 농사지음.

꼼꼼 정리

교과서 14-1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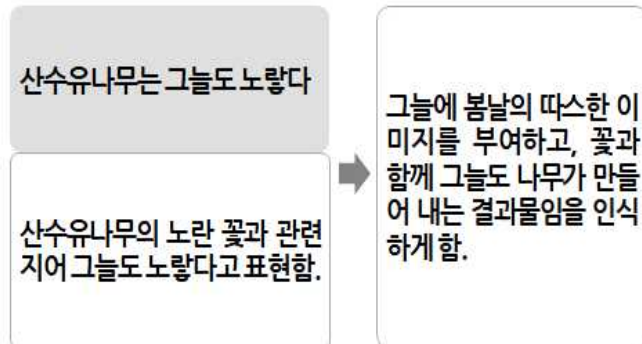
- 산수유나무와 사람들의 속성 대비



꼼꼼 정리

교과서 14-1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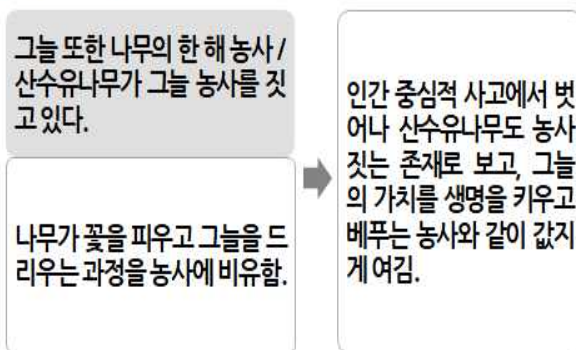
- 참신한 발상이 드러난 표현



꼼꼼 정리

교과서 14-1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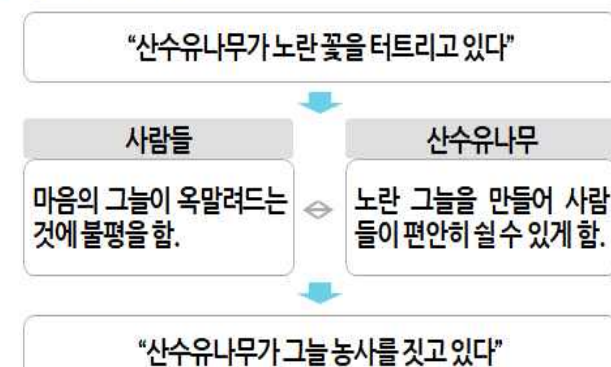
- 참신한 발상이 드러난 표현



꼼꼼 정리

교과서 19쪽

- 작품 창작의 발상과 표현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산수유나무가 노란 꽃을 터트리고 있다
 산수유나무는 그들도 노랗다
 마음의 그늘이 옥말려든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보아라
 나무는 그늘을 그냥 드리우는 게 아니다
 그늘 또한 나무의 한 해 농사
 산수유나무가 ㉠그늘 농사를 짓고 있다
 꽃은 하늘에 피우지만 그늘은 땅에서 넓어진다
 산수유나무가 농부처럼 농사를 짓고 있다
 끌어모으면 벌써 노란 좁쌀 다섯 되 무게의 그늘이다
 -문태준, '산수유나무의 농사'

강일고등학교 (서울)

1. 위 시를 읽고 감상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색채어를 사용하여 대상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② 자연물에 대한 참신한 문학적 발상이 시상을 이끌어내는 매개체로 작용하고 있다.
- ③ 대립적인 속성의 시어를 대비시킴으로써 시적 의미를 강화하고 있다.
- ④ 유사한 통사 구조와 단어를 반복하여 사용함으로써 외형률의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⑤ 참신한 시각으로 바람직한 삶의 태도를 성찰하고 있다.

강일고등학교 (서울)

2. <보기1> 제시어 3개를 모두 활용하여 ㉡'그늘'의 의미를 상세하게 문장으로 표현하되, <보기2>에 제시된 사전적 의미를 참고하여 서술하시오.

<보기1>
 제시어: 생명, 산수유나무, 공간

<보기2>
 '그늘'의 사전적 의미
 1. 어두운 부분.
 2. 의지할 만한 대상의 보호나 혜택.
 3. 밖으로 드러나지 아니한 처지나 환경.
 4.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불행한 상태. 또는 그로 인하여 나타나는 어두운 표정.

영파여자고등학교 (서울)

3. <보기>의 ㉠~㉢와 관련지어, 위 시를 감상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문학은 ㉠인식적 기능, ㉡윤리적 기능, ㉢미적 기능 등을 수행한다. 인식적 기능은 문학이 인간과 세계에 대한 체험의 영역을 넓혀주고 사고의 차원을 높여준다는 것이고, 윤리적 기능은 문학을 통해 독자 삶의 의미를 성찰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미적 기능은 문학이 우리의 상상력과 감수성을 자극하여 정서적으로나 미적으로 우리의 삶을 고양하는 것을 가리킨다.

- ① 농사는 사람이 하는 일인데 자연물인 산수유나무가 농사를 짓는다는 표현은 참신한 표현이니까 ㉠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어.
- ② 산수유나무를 노란 꽃을 능동적으로 터트리는 존재로 새롭게 이해하게 된 것은 ㉡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
- ③ 산수유나무의 관념적인 의미를 공감각적 심상을 통해 표현함으로 미의식을 높이게 된다는 것은 ㉢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
- ④ 다른 생명체를 배려하는 산수유나무의 삶의 자세를 본받아 그와 같은 삶의 자세를 지녀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
- ⑤ 어두운 계열로 표현되는 그늘을 노랗다고 한 것은 그늘에 봄날의 따뜻한 이미지를 부여하여 그늘의 새로운 시적 의미를 만들어 냄으로 ㉢를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어.

영파여자고등학교 (서울)

4. 위 시에서 산수유나무가 짓는 그늘 농사의 가치를 감각적으로 표현한 시구를 찾아 쓰시오.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산수유나무가 ㉠노란 꽃을 터트리고 있다

산수유나무는 ㉡그들도 노랗다

마음의 그늘이 옥말려든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보아라

나무는 ㉣그늘을 그냥 드리우는 게 아니다

그늘 또한 나무의 한 해 농사

산수유나무가 그늘 농사를 짓고 있다

꽃은 하늘에 피우지만 그늘은 땅에서 넓어진다

산수유나무가 농부처럼 농사를 짓고 있다

끌어모으면 벌써 ㉤노란 좁쌀 다섯 되 무게의 그늘이다

-문태준, '산수유나무의 농사'

(나)

우리는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다양한 세계를 체험하고 이해한다. 예컨대 소설을 읽으면서 등장인물이 어떤 사회에서 살고 있고, 그 속에서 어떤 행위를 하며, 왜 그런 행위를 하는지를 이해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인식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와 인간상을 체험하게 된다. 문학을 통해 새로운 인물을 만나고, 새로운 세계를 체험함으로써 인간과 세계를 보는 시야가 확대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인식능력이 그만큼 확장됨을 의미한다. 이처럼 문학은 체험의 영역을 넓혀 주고, 사고의 차원을 높여 주는 인식적 기능을 지니고 있다.

문학을 통해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독자들은 자신의 인생관과 가치관을 돌아보게 되고, 더 나은 삶이 무엇인가를 성찰하게 된다. 자신의 태도를 반성하면서 새로운 윤리의식을 가질 수도 있고, 세상을 비판하는 능력을 가질 수도 있다. 삶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고 자신의 앞길을 새로운 방향으로 개척할 수도 있다. 이처럼 문학은 우리의 삶을 고양하고, ㉠공동체적 역동성을 증진하는 윤리적 기능을 갖고 있다.

당곡고등학교 (서울)

5.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 산수유나무의 개화에 능동성을 부여하고 있다.
- ② ㉡: 그늘에 봄날의 따뜻한 이미지를 담고 있다.
- ③ ㉢: 산수유나무와 상대되는 성향을 가진 존재다.
- ④ ㉣: 산수유나무가 정성들여 농사지은 결과이다.
- ⑤ ㉤: 산수유나무 열매의 수확량을 형상화한 표현이다.

당곡고등학교 (서울)

6. ㉤에 주목하여 (가)를 주목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산수유나무가 그늘 농사를 짓는다는 시구를 읽고, 농사는 인간만이 짓는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게 되었다.
- ② 산수유나무의 그늘은 봄이 되어 핀 꽃 덕분에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랜 정성과 노력의 결실이구나!
- ③ 유엔난민기구에 후원하는 사람은 타자와 상생하고 공존하려 한다는 의미에서 산수유나무 같은 존재라 할 수 있겠군!
- ④ 부족한 것 없이 살고 있어서 타인에게 무심했었는데, 이젠 나도 소외된 이웃들에게 산수유나무 같은 존재가 돼야겠어.
- ⑤ 산수유나무의 그늘을 땅 위에 피운 또 하나의 결실로 표현한 것은 자연의 특성을 새로운 시각으로 통찰한 것이군!

현대청원고등학교 (울산)

7. 다음 밑줄 친 시어 중, ㉠의 '그늘'의 함축적 의미와 유사한 시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포수는 한 덩이 낚으로
그 순수를 겨냥하지만,
매양 쏘는 것은 / 피에 젖은 한 마리 상한 새에 지나지 않는다.
-박남수, '새'
- ② 떡갈나무 숲에 남아 있는 열매 하나.
어느 산짐승이 혀로 핥아 보다가, 뒤에 오는
제 새끼를 위해 남겨 놓았을까? 그 순한 산짐승의
젓꼭지처럼 까맣다.
-이준관, '가을 떡갈나무 숲'
- ③ 열다섯 어여쁜 아가씨
부끄러워 말없이 헤어지고는
돌아와서 곁문을 닫고는
배꽃에 걸린 달 향해 눈물 흘리네
-임제, '무어별'
- ④ 산이 저문다. / 노을이 잠긴다.
저녁 밥상에 해기가 없다.
애기 았던 방석에 한 쌍의 은수저
은수저 끝에 눈물이 고인다.
-김광균, '은수저'
- ⑤ 그리운 그의 얼굴 다시 찾을 수 없어도
화사한 그의 꽃
산(山)에 언덕에 피어날지어이.
-신동엽, '산에 언덕에'

<서경별곡>

정리

갈래	고려 속요	성격	서정적, 서민적
제재	임과의 이별	주제	임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다짐하면서 서도 떠난 임을 원망함.
특징	① 적극적이고 솔직한 여성의 어조가 나타남. ② 비유법, 설의법 등을 사용함. ③ 슬픔, 사랑, 원망 등 연마다 다른 정서를 드러냄. ④ 3음보 율격을 지니며, 후렴구와 여음구가 사용됨.		
구성	[1연] 서경 노래: 이별에 마음 아파함. [2연] 구슬 노래: 임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다짐함. [3연] 대동강 노래: 떠나는 임에 대한 원망을 드러냄.		

핵심 내용

■ 고려 속요의 특징

고려 속요
민간의 노래로 고려
시대에 궁중
속악으로 편입되기도
했던 갈래

- 대개 구비 전승되어 온 민요가 궁중 음악으로 수용되면서 변화를 겪고 훈민정음 창제 이후로 한글로 기록됨.
- 주로 3음보 율격을 지님.
- 대부분 여러 개의 연으로 구성됨(분연체).
- 후렴구나 여음구가 포함된 작품이 많음.
- 평민들의 소박한 생활과 감정을 표현한 작품이 많음.

■ 시어 및 시구의 상징적 의미

- * 구슬: 두 사람 사이의 관계
- * 바위: 두 사람을 헤어지게 하는 시련
- * 긴(끈): 두 사람 사이의 사랑 또는 신뢰
- * 여히므른 ~ 우러곰 좃니노이다: 이별을 피하기 위해 임을 따라가고 싶다는 애절한 마음을 표현한 구절
- * 구스리 ~ 긴히쑤 그츠히잇가 / 즘은 히를 ~ 신잇둔 그츠히잇가: 변치 않는 사랑을 구슬을 꿰 끈에 비유한 구절

■ 이 작품에 나타난 고려 속요의 특징

- ① 3연으로 구성된 분연체임.
- ② 3음보의 율격을 지님. (예) 닷곤 곤 뒤V쇼성경V고외마른V
- ③ 후렴구를 통해 리듬감을 형성함. (예)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 ④ 악률을 맞추기 위한 여음구를 사용함. (예) 아즐가, 나노

■ 이 작품에 나타난 <정석가> 차용 양상

구슬 노래: 구스리 바회예 디신돌, 긴히둔 그츠히잇가, 신(信)잇둔 그츠히잇가	
<정석가>	<서경별곡>
6연에 나타남.	2연에 나타남

→ 두 작품이 구전되는 과정에서 당시에 인기 있던 노랫말이 각 작품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점에서 고려 속요의 민요적 특징이 드러남.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서경(西京)이 아즐가 서경이 서울히마르는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닷곤 디 아즐가 닷곤 디 쇼성경 고외마른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여히므론 아즐가 여히므론 질삼뵈 브리시고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괴시란디 아즐가 괴시란디 우러곰 좃니노이다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구스리 아즐가 구스리 바회에 디신들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긴히쑤 아즐가 긴히쑤 그츠리잇가 나눈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즘른 히를 아즐가 즘른 히를 외오곰 녀신들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신(信)잇든 아즐가 신(信)잇든 그츠리잇가 나눈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대동강(大同江) 아즐가 대동강(大同江) 너븐디 몰라셔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비 내여 아즐가 비 내여 노훈다 샤공아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네 가지 아즐가 네 가지 림난디 몰라셔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널 비에 아즐가 널 비에 연즌다 샤공아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대동강(大同江) 아즐가 대동강(大同江) 건넌편 고즐여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아령디리
 비 타들면 아즐가 비 타들면 것고리이다 나눈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 작자 미상, <서경별곡>

강릉고등학교 (강원)

1. (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 ① 구체적인 지명을 사용하여 사실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② 일부러 의문의 형식을 사용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③ 유교적 윤리에 의해 남녀 간의 연애 감정이 절제되고 있다.
- ④ 분연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3음보의 율격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여음구와 후렴구를 반복 활용하여 운율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강릉고등학교 (강원)

2. (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 ① 1연에는 임과의 이별을 수용하지 않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난다.
- ② 2연에서는 화자는 임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다짐하고 있다.
- ③ 2연에서는 상황이 변함에 따라 임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달라진다.
- ④ 3연에는 화자와 임의 단절감을 상징하는 공간이 나타난다.
- ⑤ 3연에서는 떠나는 임에 대한 원망을 다른 대상에게 돌리고 있다.

강릉고등학교 (강원)

3. (가)의 시어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 ① 서경 : 화자가 좋아하지만 떠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곳이다.
- ② 질삼뵈 : 중요한 생계수단이라 화자는 포기하지 않으려 한다.
- ③ 바회 : 두 사람의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시련이나 고난을 의미한다.
- ④ 신(信) : '긴'의 원관념이며, 임에 대한 사랑으로 이해할 수 있다.
- ⑤ 곳 : 임이 나를 떠난 후 만나게 될 다른 여자를 의미한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고려속요는 민간의 사랑 노래가 궁중악으로 정제되어 편입되는 과정에서 변화를 겪기도 했다. 즉 작품의 특정 부분에 긴밀한 유기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형식적 장치를 마련하여 한 작품이 구성될 때 ㉠반복되며 작품 전체에 통일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더하였다. 그리고 궁중 연향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특정 부분이 덧붙여지기도 했다. 예컨대, 전체적으로 애뜻한 그리움의 정서를 보이는 작품에 송축의 내용을 담거나 이별의 상황과 동떨어진 시어를 붙이기도 한다. 어떤 작품에서는 시적 화자가 교체되는 내용이 한 작품에 묶여서 나타나기도 한다.

(나)

서경(西京)이 아즐가 서경(西京)이 서울히마르는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닷곤 디 아즐가 닷곤 디 쇼성경 고외마른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여히므론 아즐가 여히므론 질삼뵈 브리시고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괴시란디 아즐가 괴시란디 우러곰 좃니노이다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구스리 아즐가 구스리 바희에 디신들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긴히썸 아즐가 긴히썸 그츠리잇가 나논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즈믄 히를 아즐가 즘 히를 외오곰 녀신들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신(信)잇든 아즐가 신(信)잇든 그츠리잇가 나논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대동강(大同江) 아즐가 대동강(大同江) 너븐디 몰라셔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비 내여 아즐가 비 내여 노훈다 샹공아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네 가시 아즐가 네 가시 럼난디 몰라셔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넬 비에 아즐가 넬 비에 연즌다 샹공아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대동강(大同江) 아즐가 대동강(大同江) 건넌편 고즐여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아령디리

비 타들면 아즐가 비 타들면 것고리이다 나논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 작자미상, 「서경별곡」

서울고등학교 (서울)

4.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연>과 <2연>은 대조와 연쇄를 통해 생동감을 드러낸다.
- ② <1연>과 <3연>은 <2연>과 달리 시적 공간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 ③ <1연>과 <3연>은 상황의 가정을 통해 화자의 생각을 드러낸다.
- ④ <2연>은 <1연>에 비해 설의적 표현이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 ⑤ <3연>은 <1연>, <2연>과 달리 문제 상황에 대한 책임을 제삼자에게 전가한다.

서울고등학교 (서울)

5. (나)의 <2연>과 <보기>의 한시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비록 구슬이 바위에 떨어져도 縱然巖石落珠璣
 끈은 진실로 끊어질 때 없으리. 纓縷固應無斷時
 낭군과 천 년을 이별한다고 해도 與郎千載相離別
 한 붉은 마음이야 어찌 바뀌리오? 一點丹心何改移

- 이제현

- ① <2연>의 '바희'와 <보기>의 '바위'는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군.
- ② <2연>과 <보기> 모두 가창을 위한 후렴구와 여음구가 나타나군.
- ③ <2연>과 <보기> 모두 비유를 통해 화자의 굳은 의지를 강조하고 있군.
- ④ <2연>과 <보기> 모두 임을 향한 화자의 변치 않는 사랑과 믿음을 드러내고 있군.
- ⑤ <2연>과 <보기>를 보니 동일한 모티프가 서로 다른 장르의 작품으로 다루어졌음을 알 수 있군.

서울고등학교 (서울)

6. (가)의 ㉠의 예를 (나)에서 찾아 그대로 쓰시오.

나상

꼼꼼 정리

교과서 28-32쪽

● 인물의 성격

형	동생
솔직하고 천진난만하지만 둔감하고 어수룩하여 현실에 잘 적응하지 못함.	오연하고 냉철하며 어려운 환경에도 잘 적응함.

▶ 두 인물의 대비를 통해 올바른 삶의 방향을 모색함.

핵심 정리

교과서 28-32쪽

- 갈래** 단편 소설, 액자 소설
- 성격** 비판적, 실존적
- 배경** 한국 전쟁 당시부터 그 이후, 북으로 이송되어 가는 길
- 시점** 외부 이야기 - 1인칭 관찰자시점
내부 이야기 - 전지적 작가시점

핵심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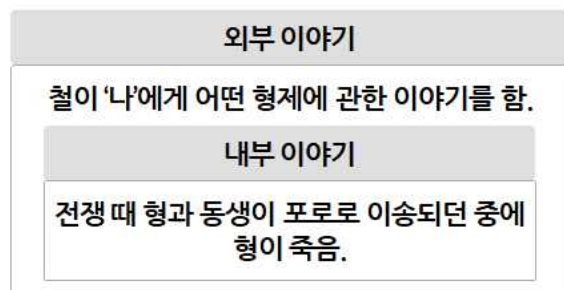
교과서 28-32쪽

- 주제** 근원적 인간성의 소중함과 극한 상황 속에서 모색하는 올바른 삶의 자세
- 특징** ① 외부 이야기와 내부 이야기의 서술 시점이 다름.
② 외부 이야기와 내부 이야기를 넘나드는 인물을 통해 과거와 현재를 교차시켜 주제를 확장함.

꼼꼼 정리

교과서 28-3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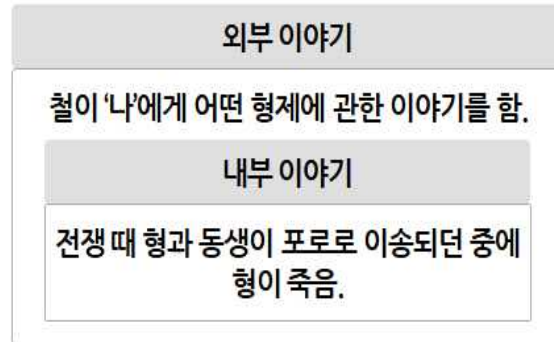
● 액자 구조



꼼꼼 정리

교과서 28-32쪽

● 액자 구조



꼼꼼 정리

교과서 28-32쪽

● 형제의 이동 경로(통천 → 원산 → 양덕 → ...)



꼼꼼 정리

교과서 28-3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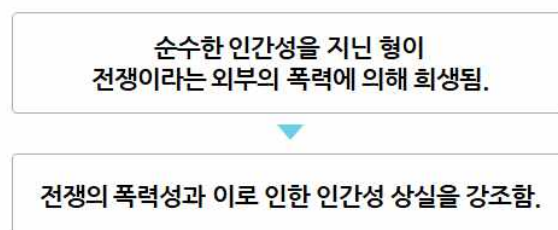
● 인물의 태도

형	극한 상황에서도 동생을 걱정하는 인간적이고 희생적인 태도를 보임.
동생	평소에 형을 무시하는 냉소적 태도를 보였으나, 포로 이송 과정에서 점차 형에게 마음을 엮.

꼼꼼 정리

교과서 28-3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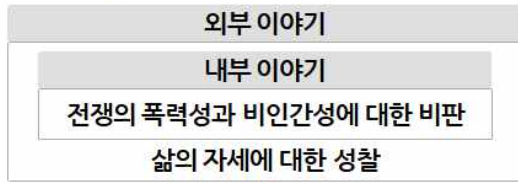
● 형의 죽음에 담긴 의미



꼼꼼 정리

교재서 35쪽

● 액자 구조를 통한 주제 확장



근원적 인간성의 소중함과 극한 상황 속에서의 올바른 삶의 자세에 대한 성찰

꼼꼼 정리

교재서 35쪽

● 제목의 의미



- 형으로 상징되는 순수한 인간 본연의 상태를 의미함.
- 전쟁에 의해 희생되는 순수한 인간성을 강조함.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땅 위엔 무언지 불길한 느낌이 들도록 차단한 정적이 흘렀다.

철과 나는 베란다 위에 앉아 있었다. 막연한 원시적인 공포감 같은 소심한 느낌에 사로잡혀 무한정 묵묵히 앉아 있었다. 철은 먼 하늘가에 시선을 준 채 연방 담배를 피웠다. 이렇게 한동안 말없이 앉았다가 철은 문득 다음과 같은 얘기를 들려주었다.

(나)

형은 스물일곱 살이었고 동생은 스물두 살이었다.

형은 둔감했고 위태위태하도록 솔직했고, 결국 조금 모자란 사람이었다.

해방 이듬해 삼팔선을 넘어올 때 모두 긴장해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판에 큰 소리로,

㉠“야하, 이기 바루 그 삼팔선이구나이, 야하.”

이래 낚서 일행 모두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 일이 있었다. 아버지는 그때도 형을 쥐어박았고, 형은 엉엉 울었고, 어머니도 찢끔찢끔 울었다. 아버지는 애초부터 이 형을 단념하고 있었고, 어머니는 불쌍해서 이따금씩 찢끔거리곤 했다.

물론 평소에 동생에 대한 형으로서의 체모나 위신 같은 것도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서, 이미 철들자부터 형을 대하는 동생의 눈언저리와 입가엔 늘 쓴웃음 같은 것이 어리어 있었으니, 하얀 살갗의 여윈 얼굴에 이 쓴웃음은 동생의 오연한 성미와 잘 어울려 있었다.

어머니는 형에 대한 아버지의 단념이나 동생의 이런 투가 더 서러웠는지도 몰랐다. 그러나 형은 아버지나 어머니나 동생의 표정에 구애 없이 하루하루가 그저 천하태평이었다.

(다)

“그 새끼 생각이 난다. 맘이 꽤 좋았겠이야이.”

“.....”

“㉡난 원래 다리에 담증이 있는데이. 너두 알잖니. 요새 좀 이상한 것 같다야.”

하고는 해죽이 웃었다.

“.....”

동생은 놀라 돌아다보았다. 여느 때 없이 형은 쓸쓸하게 웃으면서 두 팔로 동생의 어깨를 천천히 그려안으면서,

“철성아, 야하, 흠씩은 춥다.”

“.....”

“저 말이다, 엄만 날 늘 불쌍히 여겼어야잉. 야, 철성아, 철성아, 내 다리가 좀 이상한 것 같다야이.”

(라)

㉢며칠이 지날수록 형의 걸음은 더 절룩거리려졌다. 행렬 속에서도 별로 혼잡소릴 지껄이지 않았다. 평소의 형답지 않게 꽤나 조심스런 낫색이었다. 돌레를 두리번거리며 경비병의 눈치를 흘끔거리기만 했다. 이젠 밤에도 동생의 귀에

다 입을 대고 이것저것 지껄이지 않았다. 그러나 먼 개 짖는 소리 같은 것에는 여전히 흠칫흠칫 놀라곤 했다. 동생은 또 참다못해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형은 왜 우느냐고 화를 내지도 않고 울음을 터뜨리지도 않았다. 동생은 이런 형이 서러워 더 더 흐느꼈다.

㉣그날 밤, 바깥엔 함박눈이 내렸다.

형은 불현듯 동생의 귀에다 입을 댔다.

㉤“너, 무슨 일이 생겨두 날 형이라고 글지 마라, 어영”

㉥여느 때답지 않게 속성한 사람 같은 억양이었다.

“울지두 말구 모르는 체만 해, 꼭.”

동생은 부러 큰 소리로,

“야하, 눈이 내린다.” / ㉦형이 지껄일 소리를 자기가 지

금 대신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 “.....”

그러나 이미 형은 그저 꼭 하니 굳은 표정이었다.

동생은 안타까워 또 울었다. 형을 그러안고 귀에다 입을 대고, / ㉧“형아, 형아, 정신 차려.”

이튿날, 한낮이 기울어서 어느 영 기슭에 다다르자, ㉨형은 동생의 허벅다리를 쿡 찌르고는 걸던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했다.

[A] 형의 걸음걸이를 주의해 보아 오던 한 사람이 뒤에서 따발총을 휘둘러 쏘았다.

형은 앉은 채 앞으로 꼬꾸라졌다. 그 사람은 총을 어깨에 둘러메면서,

㉩“메칠을 더 살갓다구 빼득대? 빼득대길.”

(마)

철의 얘기란 대강 이러했다.

여름 날씨란 변덕도 심하다. 금세 한소나기 쏟아질 것 같던 서편 하늘의 구름이 어느새 씻은 듯 없어졌다. 온 하늘에는 별들만 새파랗게 깔려 있고, 초이레 달이 한복판에 허전히 걸려 있다. 바람은 찜찜 더욱더 세차게 불고, 집집의 지붕들은 깊숙하고도 싸늘한 빛으로 물들고, 땅 위에는 차단한 정적이 흘렀다. (중략)

뒷부분의 줄거리 ▶ 철은 ‘나’에게 형제 중에 누가 더 둔감했다고 보는지 물은 후, 동생이 만포진의 수용소에 있다가 포로 교환 때 나왔다고 말한다. 그리고 자신의 어릴 적 이름이 칠성이었음을 고백하며, 현실에 순응하며 살았던 자신의 삶이 옳은 것이었는지 회의한다.

-이호철, ‘나상’

강일고등학교 (서울)

1. 위 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가)에서는 소설 속의 화자가 ‘철’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전하는 서술 구조를 보이고 있다.
- ② (나)에서는 소설 밖의 서술자가 ‘동생’의 성격을 ‘오연하다’고 직접 제시해 주고 있다.
- ③ (다)에서는 인물간의 대화를 중심으로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 ④ (가)~(마)를 볼 때, 현재와 과거를 교차 서술하여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 ⑤ (가)와 (마)는 액자 속 이야기이고 (나), (다), (라)는 액자 밖 이야기이다.

강일고등학교 (서울)

2. ㉠~㉣에 대한 이해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은 '형'의 천진난만한 성품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 ② ㉡은 형이 비극적 결말을 맞게 되는 원인이 되는 사건이다.
- ③ ㉢은 '형'의 내면 심리를 잘 표현한 배경이 되는 소재로 소설의 실감을 더해 준다.
- ④ ㉣은 자신의 죽음을 예감한 '형'이 자신으로 인해 동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 ⑤ ㉣을 통해 형을 무시하던 동생이 온전히 형을 사랑하게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강일고등학교 (서울)

3. [A]에서 '한 사람'과 '형'의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 볼 때, 형상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숙명여자고등학교 (서울)

4. ㉠~㉣에 대한 이해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 걷기 힘든 형의 상황을 드러냄으로써 비극적 결말을 떠올리게 한다.
- ② ㉡: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형이 평소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음을 드러낸다.
- ③ ㉢: 형의 행동을 닮아가는 것을 거부하고 싶은 동생의 심리가 드러나 있다.
- ④ ㉣: 동생을 위한 형의 배려로, 어젯밤에 자신이 한 당부를 잊지 말라는 신호에 해당한다.
- ⑤ ㉣: 경비병이 내뱉은 말로, 형의 죽음이라는 비극적 사건을 냉정한 현실로 드러낸다.

숙명여자고등학교 (서울)

5. <보기>의 (가)와 (나)에 대한 이해로 옳지 않은 것 두 개 고르면?

<보기>

(가) 외부 이야기: '나'와 '철'의 대화

(나) 내부 이야기:
북한군의 포로가 된 형과 동생('철')이 전쟁 중에 겪은 사건

- ① (가)는 전지적 시점에 해당하며, (나)를 통해 변화된 '철'의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가)의 '철'은 외부 이야기의 주인공으로서, '나'에게 질문하는 형식으로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나)의 '형'은 비극적 전쟁의 피해자로서 (가)의 '철'에 의해 동생과 대비되는 인물로 제시되고 있다.
- ④ (나)의 '동생'은 내부 이야기의 서술자로서 (가)의 '철'에 의해 덜 둔감한 존재로 정의되고 있다.
- ⑤ (가)와 (나)로 이루어진 액자 구성은 '형'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효과적으로 뒤집어 보는 장치가 되고 있다.

숙명여자고등학교 (서울)

6. 윗글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기>와 같이 재구성 하려고 할 때, <보기>에 사용된 서술 시점을 쓰시오.

<보기>

나이가 어려 보이는 남자는 절룩거리며 사람 옆에 다가서 부축을 하려고 간간히 손을 내밀었지만, 나이가 든 쪽은 다가온 손을 뿌리치며 거부하는 것으로 보였다. '형제라도 되나?' 아니 형제일리 없지. 이런 전쟁 통에서 형제가 포로가 되어 만나는 일이 쉽게 일어나겠나?'

나는 나이가 든 쪽을 바라보며, 내일이면 쓰러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때 나이가 든 사람이 젊은 사람의 허벅다리를 쿡쿡 찌르더니 걸던 자리에 주저앉고 말했다. 옆에서 함께 걸던 친구가 쓰러진 사람을 향해 따발총을 휘둘러 쏘았다. 며칠 전부터 행군이 늦어지는 것을 짜증내던 친구였다.

"메칠을 더 살겠다구 빼득대? 빼득대길?"

입을 막고 놀람을 감추지 못하는 나이 어린 사람을 향하여 나도 한 마디 덧붙였다.

"저 꼴 나지 않으려면 날래 걸으라우. 갈 길이 멀다야 이."

복어 대가리

핵심 정리

교과서 36~40쪽

- 갈래** 희곡, 현대극, 단막극
- 성격** 상징적, 비판적
- 배경** 현대의 어느 창고 안
- 주제** 현대 사회에서 기계 부품처럼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

핵심 정리

교과서 36~40쪽

- 특징** ① 서로 상반된 가치관을 지닌 인물 간의 갈등을 통해 사건을 전개하고 주제를 부각함.
- ② 창고, 상자, 복어 대가리 등의 상징적인 배경과 소재를 통해 주제를 우의적으로 표현함.

꼼꼼 정리

교과서 36~40쪽

● 자양의 성격

- 상자를 내리고 올리는 일을 꼼꼼하게 처리함.
- 상자가 뒤바뀐 것을 알고 편지를 보내려 함.
- 상자가 어디로 가는지 모름.

현실에 만족하면서 성실하고 정직한 태도로 살아가지만, 기계화된 현대 사회의 부속품에 지나지 않음.

꼼꼼 정리

교과서 36~40쪽

● 인물의 명명법에 나타난 특징

자양, 기임	성씨만으로 이름을 대신함.	익명성 • 소통이 단절된 현대인의 모습 • 개성을 잃고 부속품처럼 살아가는 모습
운전수	하는 일로 이름을 대신함.	
딸기코, 외눈갈	별명으로 이름을 대신함.	

꼼꼼 정리

교과서 36~40쪽

● 인물 간의 갈등

자양 상자가 뒤바뀐 사실을 상자 주인에게 알려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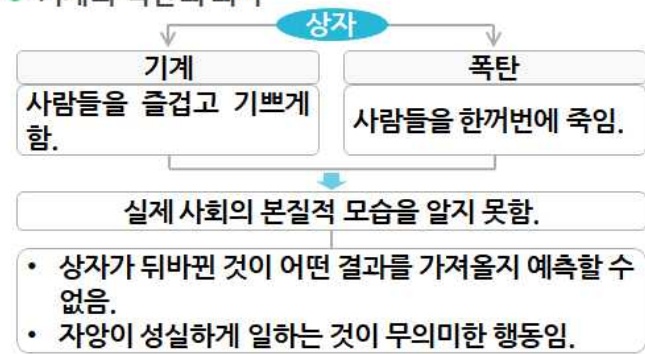


운전수 편지를 보낼 필요가 없으며, 상자 주인에게 편지가 도착할 수도 없다.

꼼꼼 정리

교과서 36~40쪽

● '기계'와 '폭탄'의 의미



꼼꼼 정리

교과서 36~40쪽

● '서류'에 대한 두 인물의 인식

자양 • 판단과 행위의 기준
• 사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믿음을 보여 줌.

서류

운전수 • 신뢰할 수 없는 대상
• 사회의 거대한 부조리함에 대해 불신을 드러냄.

꼼꼼 정리

교과서 36~40쪽

● 창고를 떠나기로 한 기임의 선택

창고 안 창고 밖 생활에 대한 막연한 동경을 가짐.

창고를 떠날 결심을 하는 기임

창고 밖 부속품처럼 살아가는 운전수를 통해 창고 밖의 삶도 희망적이지만은 않음을 알 수 있음.

꼼꼼 정리

교과서 36-40쪽

● 자양과 기임의 우정

자양	기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임이 창고를 떠나지 않기를 바람. 기임에게 스웨터와 복어 대가리를 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양에게 그동안의 고마움을 전함. 혼자 남은 자양을 걱정함.
함께 사용하던 물건을 서로 양보하며 이별을 아쉬워함.	

서로 가치관과 삶의 태도는 다르지만 함께 지낸 시간 동안 우정을 쌓음.

꼼꼼 정리

교과서 36-40쪽

● '복어 대가리'의 의미

복어 대가리	
몸뚱이를 상실함.	머리만 남음.
실천력과 방향성을 상실함.	쓸쓸하고 허무한 생각으로 가득 참.

방향성을 잃고 가치관의 혼란을 겪는 현대인의 모습

꼼꼼 정리

교과서 36-40쪽

● 자양의 내적 갈등

맡은 일을 성실히 하는 것이 옳다는 믿음으로, 창고 안의 삶에 만족함.

자신의 신념과 태도가 헛된 것일 수 있다는 회의를 느낌.

세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채 분업화된 사회를 살아가는 개인의 모습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자양: (편지를 운전수에게 내밀며) 제발 보내야 해요!

운전수: 여봐, 내가 상자들을 운반하고 다니니깐 상자 주인과 통할 수 있다고 생각한 모양인데, 그건 큰 착각이야. ㉠난 말이야,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싣고 왔다가 그냥 실어 가는 거라구. 실제로 내가 아는 건, 정거장에서 여러 트럭들이 상자를 나눠 받을 때 만나는 분배 반장 딸기코하고, 창고에 보관했다가 다시 나눠 싣고 정거장에 가서 만나는 접수 반장 외눈깔, 그 둘뿐이라구. 딸기코와 외눈깔은 내가 붙인 별명인데, 물론 진짜 이름이야 있겠지. 하지만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지 않고 노름꾼이라 하듯이 나도 그들을 별명으로만 불러. 어쨌든 딸기코가 상자를 분배하는 곳은 정거장의 왼쪽이고, 외눈깔이 상자를 접수하는 곳은 정거장의 오른쪽이야. 그래서 그들은 ㉡같은 정거장에서 둘 다 상자를 취급하면서도 서로 얼굴 한 번 볼 수조차 없어.

(나)

자양: 그래도 상자 주인에게는 반드시 알려 줘야죠. ㉢영똥하게 바뀐 상자 하나 때문에 뭔가 잘못 만들어지면 안 되잖아요.

운전수: 잘못 만들어진다니..... 그게 뭔데?

다링: (멀리서 듣고 있다가 큰 소리로 외친다.) 어떤 굉장한 기계래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즐겁고 기쁘게 해 주는 신기한 기계죠!

운전수: (다링에게 외친다.) 무슨 기계라구?

다링: (큰 소리로) 기계가 아니라 폭탄이래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한꺼번에 죽여요!

운전수: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 (자양에게) 어쨌든 상자 속의 부속품으로 뭘 만드는지 알 수는 없어. 만약 폭탄을 만든다면 오히려 상자가 바뀐 것이 사람들의 목숨을 살릴 테니깐 잘된 일이잖아? (자양의 편지를 허공에 들고 두 조각으로 찢으며) 여봐, 자넨 너무 배짱이 약해. ㉣이 조그만 창고 속에서 모든 걸 성실하게 잘했다는 것이, 창고 밖에서는 매우 큰 잘못이 된다고 생각해봐. 그럼 상자 하나쯤 틀렸다고 안절부절못하진 않을 거야. (두 조각으로 찢은 편지를 자양의 바지 양쪽 호주머니에 쑤셔 넣는다.) 무슨 일이 생겨도 창고 밖으로 알릴 필요는 없어. 그게 잘한 일인지 못한 일인지 모를 바에야 그냥 덮어두라구. 창고 속의 ㉤자네한테는, 그게 배짱 편한 거야.

자양: (손에 들고 있는 서류를 가리키며) 그렇다면 이 서류들은 뭐니까? 누군가 이 서류들을 보면, 상자가 잘못된 것을 알 수 있을 텐데요?

운전수: 서류가 완전하다고 믿는 건 바보들뿐이지! 좋은 예가 있어. 내 아내는 옛날에 죽었는데 사망 신고를 안 했거든. 그래서 구청에서 호적을 떼어 보면 지금도 서류상으로는 버젓하게 살아 있는 것으로 나온다구. 자, 굼벵이 양반, 꾸물대지 말고 어서 상자들이나 옮겨!

(다)

자양: 날 ㉥의붓어미라고 미워했으면서 뭘.....

기임: 진짜로 미워한 건 아니잖아?

자양: 나도 알아. (기임을 껴안는다.) 제발 가지 말아! 이 창고도, 나도, 전혀 달라진 게 없잖아?

기임: 그건 안 돼. 이 창고는 더 이상 내가 살 곳이 아냐.

운전수: 남자들끼리 헤어지면서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창고 밖으로 나가며) 시간 없어! 나 먼저 트럭에 가서 있을 테니까 너희는 어서 짐 싸 들고 나와!

다링: (늦쇠 국자로 소리 나게 두드리며) 그만하고, 서로 자기 물건들이나 골라 봐요.

기임: (자아의 포옹을 풀며) 난 내 물건을 잘 모르겠어. ㉦굼벵아, 네가 골라 줘.

자양: 아냐, 쓸 만한 게 있거든 모두 내가 가져.

기임: ㉧너는 이 창고 속에서 혼자 살 텐데.....

자양: 내 걱정은 말고 어서 먼저 골라 봐.

(라)

다링: (자양의 침대 밑에서 상자 하나를 꺼낸다.) 이걸 뭘 죠?

자양: 북어 대가리죠. 그건 가져가세요. 꼭 필요할 겁니다.

다링: 북어 대가리.....?

기임: 이게 왜 필요한지는 두고 보면 알게 될 거야. (상자를 열어서 북어 대가리를 하나 꺼내 자양에게 준다.) 난 너한테 이것밖에 줄 게 없군. 내 생각이 날 거야. 항상 곁에 두고 보라구.

자양: (북어 대가리를 받으며) 그래, 언제나 내 곁에 두고 볼게.

창고 밖에서 트럭의 재촉하는 경음기가 울린다. 다링은 서둘러서 물건들을 담요에 담는다.

(마)

창고 밖으로 떠나는 것이 즐겁다는 듯이 기임의 환호성이 들린다. 트럭 운전수와 다링의 웃음소리로 들린다. 잠시 후, ㉨트럭이 경음기를 울리며 떠나는 소리가 들린다. 창고는 조용해진다. 자양, 식탁 앞에 힘없이 주저앉는다. 늙고 허약해진 모습이다. 그는 식탁 위에 놓여 있는 북어 대가리를 물끄러미 바라본다.

자양: 그래, 나도 ㉩너처럼 머리만 남았군. 그저 쓸쓸하고..... 허무한 생각으로 가득 찬..... 머리만..... 덜렁..... 남은 거야. (두 손으로 북어 대가리를 집어서 얼굴 가까이 마주 바라보며) 말해 보렴, 네 눈엔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 그토록 오랜 나날..... 나는 이 어둡고 조그만 창고 속에서..... 행복했었다. 상자들을 옮겨 오고..... 내보내며..... 내가 맡고 있는 일을 성실하게 잘하고 있다는 뿌듯함..... 그게 내 삶을 지탱해 왔었는데..... 그러나 만약에..... 세상이 영똥하게 잘못되고 있는 것이라면..... 이 창고 속에서의 성실함이..... 무슨 소용 있는 거지? (사이) 북어 대가리야, 왜 말이 없냐? 멀뚱멀뚱 바라만 볼 뿐 왜 대답이 없어? (북어 대가리를 식탁 위에 내려놓는

다.) 아냐, 내 의심은 틀린 거야. 덜렁 남은 머릿속의 생각만으로 세상을 잘못됐다고 판단해선 안 돼. (손수레에 실린 상자를 서류와 대조하며 혼자서 쌓기 시작한다.) 제 자리에 상자들을 옮겨 놓아라! 정확하게 쌓아! 틀리면 안 돼! 단 하나의 착오도 없게, 절대로 틀려서는 안 된다.

자양, 느릿느릿 정성을 다해 상자들을 쌓는다. 무대 조명, 서서히 자양에게 압축되면서 암전한다. / -막
-이강백, '복어 대가리'

강일고등학교 (서울)

1. 위 글에 대한 이해와 수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창고'는 등장인물들이 일하는 삶의 공간으로 산업사회에서 개인에게 주어진 공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어.
- ② '기임'은 다림과 창고를 떠나면서 소망을 이루지만, '자양'은 한결같은 신념과 태도를 가지고 창고에 남아서 자아를 실현하고 있어.
- ③ '서류'에 대한 인식으로 볼 때 '자양'은 원칙주의자로 서류를 판단과 행위의 기준을 삼지만, '운전수'는 사회의 부조리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는 인물이야.
- ④ '상자'는 분업화된 현실에서 실제 사회의 본질적 모습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며, 자양이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무의미한 행동일 수 있다는 회의를 갖게 하는 소품이야.
- ⑤ '자양'과 '기임', '딸기코', '외눈깔'이라는 명명법은 현대 사회의 익명성을 상징하며, 소통이 단절된 현대인의 모습을 의미한다.

강일고등학교 (서울)

2. ㉠~㉣에 대한 반응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운전수'의 해명으로 '자양'의 요구가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어.
- ② ㉡: 산업사회에서 개인이 서로 소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돌려 말하고 있어.
- ③ ㉢: '자양'이 정직하고 성실한 성격이라는 것과 '자양'이 편지를 반드시 전달하고자 하는 이유를 밝히는 부분 이군.
- ④ ㉣: 모순된 사회 구조 속에서 개인의 맹목적인 성실함이 오히려 사회에 해악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이군.
- ⑤ ㉤: 창고 안과 밖의 선명한 대비를 통해 '자양'의 외롭고 쓸쓸한 모습이 부각되겠군.

강일고등학교 (서울)

3. 다음 중 지시하는 대상이 다른 하나는?

-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서문고등학교 (서울)

4. 윗글을 바탕으로 한 '복어 대가리'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치관의 혼란을 겪으며 방향성을 상실한 현대인의 모습
- ② 진정한 자아를 찾으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현대인의 모습
- ③ 쓸쓸하고 허무한 생각을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현대인의 모습
- ④ 가치관의 혼란을 감수하며 이상적인 삶을 지향하는 현대인의 모습
- ⑤ 머리에 온갖 생각이 가득한 채 삶의 진정한 가치를 찾는 현대인의 모습

서문고등학교 (서울)

5. 윗글에 나타난 '자양'의 신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신이 맡은 일을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하는 것이 옳다.
- ② 어둡고 조그만 창고 속에서의 삶 자체가 행복의 근원이다.
- ③ 창고 밖의 세상은 잘못되어 있고, 성실함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 ④ 서류는 믿을 수 없으며 자신이 하는 일 자체만 진실로 믿을 수 있다.
- ⑤ 자신이 하는 일에 정성을 다하면 새로운 삶이 펼쳐질 것이므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

과천여자고등학교 (경기)

6. 윗글의 등장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기임의 내적 갈등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된다.
- ② 운전수는 타인의 상황에 관심을 두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인다.
- ③ 자양은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편지를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 ④ 기임은 개인의 성실함이 오히려 해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⑤ 다림은 욕심은 많지만 혼자 남겨진 자양을 걱정하는 태도를 보인다.

I-1 산수유나무의 농사

1.④ 2.생명체의 안식처를 위해 산수유나무가 만들어 낸 공간임 3.⑤ 4.노란 좁쌀 다섯 되 무게의 그늘 5. ⑤ 6.④ 7.② 8.④ 9.⑤ 10.의인법, 다른 생명에게 휴식과 위안을 베풀. 11.④ 12.④ 13.④ 14.④ 15.③ 16. ① 17.① 18.④ 19.⑤ 20.③ 21.⑤ 22.㉠: 그늘 농사 ㉡: 대조 23.④ 24.④ 25.③ 26.②

I-2 서경별곡

1.③ 2.③ 3.② 4.① 5.② 6.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링디리 7.① 8.⑤ 9.② 10.⑤ 11.② 12.화자는 시어 '여히므론'에서 이별의 상황임을 알 수 있다. 화자는 '괴시란디 우러곰 좃니노이다'에서 임을 따라가겠다고는 적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13.③ 14.우러곰 좃니노이다 15.⑤ 16.②③⑤ 17.⑤ 18.① 19.⑤ 20.④ 21.② 22.⑤ 23.④ 24.④ 25.② 26.① 27.이별의 정한 28.② 29.③ 30.⑤ 31.② 32.④ 33.③ 34.① 35.② 36. ② 37.⑤ 38.④ 39.①

I-2 나상

1.⑤ 2.③ 3.전쟁의 폭력성과 인간성 상실을 나타냄. 4.③ 5.①④ 6.1인칭 관찰자 시점 7.㉠: 전쟁으로 인한 인간성 상실 ㉡: 인간의 소중함 8.① 9.① 10.② 11. ① 12.②④ 13.② 14.⑤ 15.④ 16.③ 17.② 18.② 19. ① 20.④ 21.① 22.내부 이야기와 외부 이야기를 넘나드는 인물이 내부 이야기를 바탕으로 외부 이야기에서 삶의 자세를 고민하는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작품의 주제가 전쟁의 비극성에 머물지 않고 올바른 삶의 자세나 방향에 관한 내용으로 확대되고 있다. 23.① 24.② 25.③ 26.④ 27.② 28.④ 29.③ 30.① 31. ② 32.⑤ 33.② 34.⑤ 35.④ 36.액자 구성을 통해, 근원적 인간성의 소중함과 극한 상황 속에서 모색하는 올바른 삶의 자세를 나타냄. 37.② 38.③ 39.② 40.⑤ 41.③ 42.② 43.③ 44.③

I-2 북어 대가리

1.② 2.① 3.⑤ 4.① 5.① 6.② 7.③ 8.③ 9.② 10.⑤ 11.⑤ 12.⑤ 13.① 14.② 15.기계 부품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문제 삼음. 16.③ 17.③ 18.⑤ 19.의붓어미, [의붓어미] 20.② 21.⑤ 22.③ 23.두 작품 모두 산업 사회에서 진정한 자아를 상실한 채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문제 삼고 있다. / '보기'는 화자의 내적 독백을 통해 주제를 전달하는 반면, 이 희곡은 등장

인물 간의 갈등 속에 전개되는 사건과, 해설, 지문, 대사 등의 요소를 활용하여 주제를 전달한다. 24.① 25.① 26.② 27.③ 28.⑤ 29.⑤ 30.④ 31.② 32.자양: 판단과 행위의 기준, 사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믿음을 보여 줌. / 운전수: 신뢰할 수 없는 대상, 사회의 거대한 부조리함에 대해 불신을 드러냄. 33.⑤ 34.③ 35.④ 36.운전수는 분배반장을 딸기코로 부르고, 접수 반장은 외눈깔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 둘은 운전수를 노름꾼이라 부른다. 이를 통해 익명성을 갖고 진정한 소통은 하지 못하는 현대사회의 문제를 비판함. 37.③ 38.④ 39.북어 대가리 40.④ 41. ④ 42.①

I-2 나와 남

1.⑤ 2.① 3.① 4.④ 5.④ 6.④ 7.⑤ 8.②

II-1 이춘풍전

1.④ 2.② 3.③ 4.④ 5.③ 6.② 7.①③ 8.⑤ 9.④ 10.⑤ 11.② 12.이왕에 자네인 줄 알았으나, 의사를 보려고 그리했지 13.① 14.⑤ 15.④ 16.아내에겐 교만하며 비장애에겐 존대함. 17.④ 18.⑤ 19.③ 20.⑤ 21.④ 22.② 23.① 24.매질 앞에서도 쉽사리 돈을 내놓으려 하지 않는 점에서 돈에 대한 집착이 있음. 25.⑤ 26.③ 27. ① 28.② 29.춘풍이~불만하다. 30.④ 31.⑤ 32.①

II-1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

1.④⑤ 2.① 굳고 정한 ② 객관적 상관물 ③ 상징적 3.④ 4.④ 5.④ 6.그러나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어 7.③ 8.⑤ 9.② 10.갈매나무 / 위 시와 '보기'의 '갈매 나무'는 모두 굳센 이미지를 지닌 소재로서, 시의 화자와 소설 속 인물로 하여금 삶의 의지를 되새기게 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11.④ 12.⑤ 13.④ 14.③⑥ 15.② 16.운명이라는 17.① 18.④ 19.③ 20.⑤ 21.④ 22.화자 자신과 동일시되는 객관적 상관물로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자세를 드러냄.

II-2 세한도

1.③ 2.② 3.㉠의인 ㉡명령 4.③ 5.날로 기우듬해 가는 마을 회관, 난장 난 비닐하우스 6.④ 7.④ 8.③ 9.청솔

II-2 메밀꽃 필 무렵

1.㉠: E, ㉡: PAN, ㉢: F.O 2.② 3.⑤ 4.독자가 상상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여운을 준다. 5.③ 6.⑤ 7.②